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9월 29일

SKT(017670)

BUY | TP 140,000원 | CP 86,2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52,900원

LGU+(032640)

BUY | TP 20,000원 | CP 14,800원



Analyst 김홍식 prol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30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서비스 10월 투자 전략

금리 내려가면 주가 오른다

10월 투자 매력도 '높음' 제시, 금리 상승 제한적일 것/AI 기대감은 상승 중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더불어 2026년 10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물론 최근 정책 금리 인상 및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통신주 배당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연말부터는 다시 금리가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고 2027년 국내에서 신규 주파수 경매 및 새로운 5G 요금제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ARPU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어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국내에서도 망 투자 촉진 이슈 되면서 2027년 고가 요금제 가입자 다시 증가할 것

10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많지 않다. 1) 3분기 통신 3사 프리뷰 발표, 2) 미국 2027년 하반기 이후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 발표, 3) 국내외 서비스 품질 차이에 따른 통신 요금 차등 허용 논의 개시, 4)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5G 주파수 할당 폭 문제 논의, 5) 금통위 10월 기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이슈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기 호재가 다수 눈에 띄인다. 물론 국내 기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부담이다. 배당 수급이 적지 않은 통신주 매수세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 한 차례를 끝으로 기준 금리 인상이 마침표를 찍고 시중 금리가 연말부터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통신주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3분기 실적이 전년동기비 개선되고 2027년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액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단순 데이터 사용량 차이가 아닌 서비스 품질 차이에 따른 요금 차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5G SA 서비스에 높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5G 총 주파수 할당 폭이 미국/중국대비 크게 적다는 점 역시 요금제 개편 이슈를 불러올 수 있어 호재라는 판단이다.

10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KT=LGU+, 재료 많은 SKT 먼저 움직일 것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한다. 더불어 10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KT=LGU+ 순으로 제시하며, 10월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을 SKT로 선정한다.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엔트로픽 IPO, 국회 AI 사업자 선정, AI 기지국 투자 본격화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0월 KT와 LGU+의 경우엔 가격 메리트가 높은 상황이나 재료 부족으로 SKT 주가 상승이 나타난 이후 연쇄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1. 10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제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유지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
2027년 서비스 매출액 성장 기
대감 높아질 수 있으며 연말 이
후 시중 금리 하락 반전 예상되
기 때문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1) 피지컬 AI 성공을 위한 방안으로 AI 기지국 보급 확산 및 5G/6G 투자 가속화가 예상되고, 2) 신규 주파수 할당/투자 및 2027년 요금제 개편을 기 반으로 다시 ARPU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3) 2027년 이후 요금제 업셀링이 나타 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상 매력도 높고, 4)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해 지면서 통신 규제 정책이 요금인하 권고에서 통신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이며, 5) 장 기적으로 보면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이익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며, 6) 연말 이후 시중 금리 하락 반전 시 기대배당수익률이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구분	투자의견 (10월)	투자의견 (9월)	등급 변화	사유
통신 업종	비중확대	비중확대	-	• 피지컬 AI 성공 위해 5G/6G 투자 가속화 전망 • 2027년 신규 주파수 공급, 요금제 개편 예상 • ARPU 성장 재개 감안 시 통신사 밸류에이션 매력적 • DPS 성장 지속될 전망. 금리 하락 시 배당수익률 매력적 • 통신 규제 정책이 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 • 이익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Multiple 확장 국면 진입 예상

주: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비중확대, 중립, 비중축소로 구분
자료: 하나증권

10월 통신주 투자 매력도 높음
으로 유지, 2027년 ARPU 성장
기대감 생겨날 것임을 감안 시
금리 하락 반전하면 투자 매력도
높아질 전망

2) 10월 투자 매력도 '높음' 유지, 신규 주파수 할당/시중 금리 추이에 주목

2026년 10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물론 최근 정책 금리 인상 및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통신주 배당 매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연말부터는 다시 금리가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고 2027년 국내에서 신규 주파수 경매 및 새로운 5G 요금제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ARPU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어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한국과 더불어 미국도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도 영향이 적지 않은데 금융 업종과 달리 금리 인상에 따른 마진 변화가 없는 반면 배당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렇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회사채 발행 금리와 배당수익률간 차이가 없어질 경우 회사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배당 가능 주식수 감소를 추진할 요인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 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미국과 한국의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그렇다. 2026년 말을 고점으로 시중 금리는 다시 하락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고 2027년 서비스 매출액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4%대에 달하는 통신서비스 업종 기대배당수익률이 다시 매력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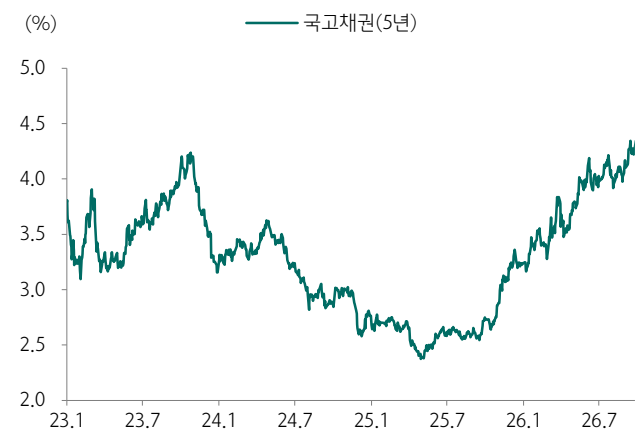
더불어 2027년도엔 국내에도 신규 주파수 경매와 더불어 5G 요금제 개편에 따른 ARPU 상승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이 이미 2026년 6월에 이어 2027년 4월 주파수 경매를 확정함에 따라 총 700MHz에 달하는 5G 용도 주파수를 확보한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은 2026년 12월 LTE 주파수를 5G로 일부 전환한다고 해도 미국 대비 월등히 적은 5G 주파수 확보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2027년 3.7GHz 대역 300MHz 주파수를 5G 용도로 신규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 망 투자 비용 부담을 명분으로 5G 요금제 개편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최근 전세계 주요 국가에선 서비스 품질에 따른 통신 요금 차등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피지컬 AI 성공을 위해선 스마트폰 외 로봇/자율차가 새로운 디바이스로 부각되는 가운데 5G/6G 네트워크 진화를 통해 AI 기지국 확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요금 인상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2026년 12월엔 망 투자 촉진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통신 요금제 개편 이슈가 커질 것이란 판단이다.

도표 2.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구분	투자 매력도 (10월)	투자 매력도 (9월)	매력도 변화	사유
통신 업종	4	4	-	2026년 연말 이후 시중 금리 하락 반전 예상 - 통신사 상대적인 배당 매력도 다시 높아질 것 2027년 3.7GHz 신규 주파수 할당 및 요금제 개편 예상 - 전세계 주요 국가 망 품질에 따른 요금 차등화 본격화 - 미국/중국 대비 월등히 적은 국내 5G 주파수 문제될 것 - 상반기 실적 양호, SKT/LGU+ 2026년 연간 높은 이익 성장 예상 - SKT 실적 양호해 4Q DPS 증가/비과세 배당 개시 예정 - 엔트로픽 IPO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추진, SKT 차익 커질 듯 - SK하이퍼 IDC 이익 기여도 증가 시 SKT 배당 증가 가능성 높아 - LGU+ 자사주 900억원 매입 중, 2027년 소각 예상 - 미국 27년 4월 어퍼 C밴드 경매 확정, 5G SA 시대 본격 개막 - 과기부/통신 3사 AI 네트워크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 - AI 기지국 본격 도입, 5G SA/6G 투자 동인 될 전망 - LTE/5G 통합 요금제 출시, 사실상 신정권 요금 인하 일단락 - LTE/5G 요금 통합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 위한 사전 작업 완료 - KT AI 결합 요금제 출시, 9만원 이상 AI 서비스 무료 제공 5G SA/6G 투자 활성화 위해 통신사 요금제 개편 시도 예상 - 피지컬 AI 활성화 위해 AI RAN 구축 전망, 5G SA 기지국 변화 예상 5G 신규 요금제 출시되면서 27년 APRU 상승 기대감 생길 것 - ARPU 성장 기대감 높다는 점 감안 시 통신주 밸류에이션 매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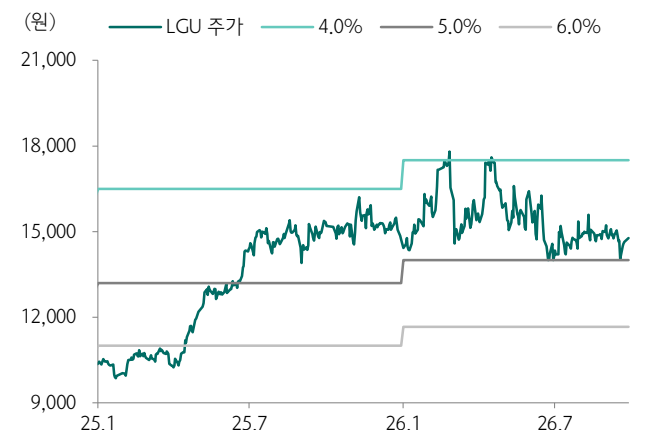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으로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으로 평가
 자료: 하나증권

도표 3. 국내 국고채 5년 수익률 추이



자료: KOFA, 하나증권

도표 4. LGU+ 배당수익률 밴드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3) 9월 통신업종 수익률은 KOSPI를 하회, 재료 부재한 가운데 주가 지지 부진

9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KOSPI를 하회, 통신 3사 모두
주가 부진한 양상 지속

9월 국내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하회하였다. KOSPI가 IT 업종의 강세로 상승 반전한 반면 통신서비스 업종은 시중 금리 상승으로 배당 매력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2027년 서비스 매출액 성장 기대감이 아직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종목별로는 2026년 주도주였던 SKT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KT와 LGU+의 주가도 부진한 양상이었다. SKT는 엔트로픽 상장 및 실적 정상화 기대감이 기존 주가에 기반영된 측면이 강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데이터센터 매출 목표치가 과도하다는 인식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못했다. LGU+는 자사주 매입 진행 중임에도 주가가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자사주 매입/소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이었다. KT 역시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8월에 이어 9월에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지속하였다.

도표 5. 2026년 9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점검

(단위: %, %p)

업종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통신업종	(6.6)	(0.2)	(8.1)	17.9

주: 지수는 9/28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6. 2026년 9월 KOSPI 대비 종목별 수익률 점검

(단위: %, %p)

종목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SK텔레콤	(10.6)	(2.7)	(12.0)	15.4
KT	(2.9)	1.3	(4.4)	19.4
LG유플러스	(1.7)	3.9	(3.2)	22.0

주: 주가는 9/28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4) 강세장 아니라면 10월 통신주 시장 수익률 KOSPI를 상회할 전망

10월 국내 통신 3사 주가 현재
보단 높아질 듯, 약세장 예상한
다면 비중확대 고려할 필요

2026년 10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명목상 플러스 달성이 예상된다. 실적 시즌을 맞이하여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7년으로 다가가면서 금리 하락과 더불어 요금제 개편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2027년으로 시각을 넘기면 오랜만에 통신서비스 서비스 매출액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어 현 주가 수준에서는 서서히 주가 반등이 나타날 것이란 판단이다. 따라서 강세장이 아니라면 10월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한다.

10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많지 않다. 1) 3분기 통신 3사 프리뷰 발표, 2) 미국 2027년 하반기 이후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 발표, 3) 국내외 서비스 품질 차이에 따른 통신 요금 차등 허용 논의 개시, 4)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5G 주파수 할당 폭 문제 논의, 5) 금통위 10월 기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이슈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기 호재가 다수 눈에 띄인다. 물론 국내 기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부담이다. 배당 수급이 적지 않은 통신주 매수세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 한 차례를 끝으로 기준 금리 인상이 마침표를 찍고 시중 금리가 연말부터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통신주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금리 상승 부담은 10월을 정점으로 낮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반면 3분기 실적이 전년동기비 개선되고 2027년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액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단순 데이터 사용량 차이가 아닌 서비스 품질 차이에 따른 요금 차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5G SA 서비스에 높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5G 총 주파수 할당 폭이 미국/중국대비 크게 적다는 점 역시 요금제 개편 이슈를 불러올 수 있어 호재라는 판단이다. 2027년 신규 5G 주파수 할당이 국내에도 이루어지면 망 투자 부담 증가를 빌미로 당연히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킹 이슈, 명예 퇴직금 지급으로 2025년 3분기 통신사 실적이 좋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실적 시즌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 장/단기 통신주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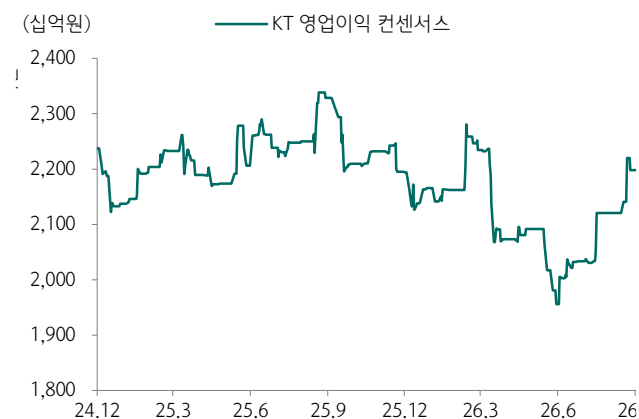
도표 7.10월 통신서비스 업종 이슈 점검

3분기 실적 전년동기비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5G 요금제 개편 기대감 높아질 수 있어 금리 상승 종료되면 통신주 오를 것

구분	내용
긍정적 요소	- 미국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 확정, 2027년 4월 경매 예정 -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5G 주파수 할당 폭 이슈화되는 양상, 2027년 주파수 경매 가능성 높아 - 서비스 품질별 통신 요금 차이 허용 이슈로 부상 중, 5G SA 요금 인상 가능성 고조 3분기 프리뷰 본격화, 낮은 기저로 2026년 3분기 통신사 높은 이익 성장 전망 - 통신 3사/과기부 AI 네트워크 민간 협의체 구성, 12월 망 투자 촉진 정책 발표 예상 - SKT/LGU+ 5G SA 연내 상용화 예정 언급, 2026년 연말 요금제 개편 논의 예상 - KT 9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AI 서비스 무료 제공, 통신사 AI 과금화 본격화 - 올 가을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사업자 발표 예정, SKT 선정 가능성 높아 - LTE/5G 요금제 통합, 요금 인하 정책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 - SK하이퍼 SPC 형태로 설립, 데이터센터 이익 SKT 배당금으로 유입될 것 - LGU+ 자사주 900억원 취득 중, 2027년 소각으로 장기 주주 환원 증대 이루어질 전망 - 기저 효과로 2026년 SKT/LGU+ 높은 이익 성장 달성 전망 - 피지컬 AI 경쟁 심화,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 추진 본격화 전망 - 미국을 중심으로 양자암호통신 급부상, 차세대 서비스에 기본 탑재/킬러 서비스 역할 수행할 듯 - 제조사간 경쟁 어려워 단통법 폐지에도 국내 통신 유통 시장 크게 영향 받긴 어려운 상황 - 규제 당국 추진에도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가능성 낮음, 재무적 이슈 여전히 크기 때문
부정적 요소	- 시중 금리 상승세, 기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높아 - 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양상, 비용 통제로 이익 증가하는 전형적인 성숙기 후반 모습 연출 중 - KT 토탈 영업 TF로 배치된 2,300명 본업 복귀, 2026년 이후 인건비 다시 증가 예상 - LGU+ 자사주 소각 규모 감소로 2026년 연간 주주이익환원 규모 일시적 감소 예상 - SKT를 제외한 KT/LGU+ 2026년 배당금 총액 정체 예상 - 데이터센터 투자 증대로 단기 현금흐름 악화 예상 2024년 이후 트래픽 정체 양상 심각, 요금제 개편 없을 시 통신사 매출 정체 우려감 커질 것 - 통신사+금융권 합산 알뜰폰 M/S 60%로 제한 전망, MVNO 가입자 확대에 제동 걸릴 전망 - 국내 통신사 PBR 낮지만 해외 통신사 대비 ROE가 낮은 편
종합 평가	AI 기지국/5G SA 도입 기대감 팽창 국면, 금리 하락 반전 시 통신주 오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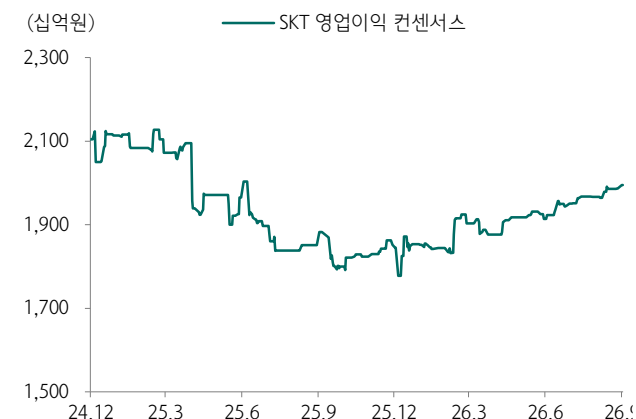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8. 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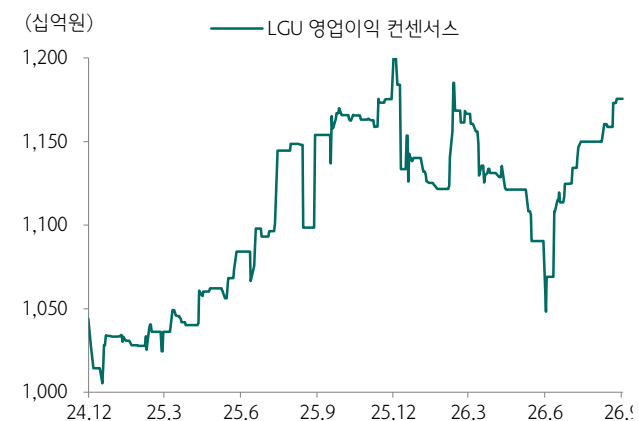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9. S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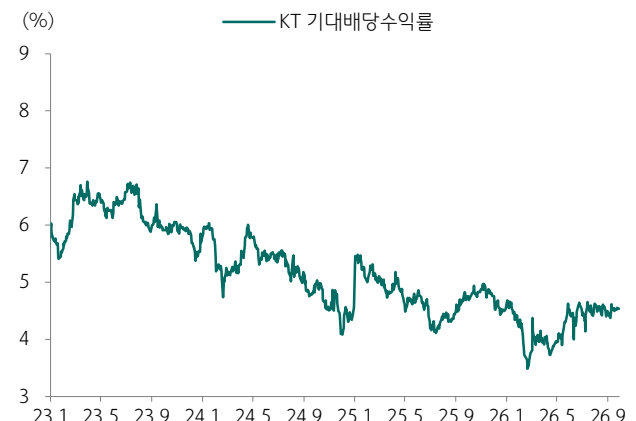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0. LG유플러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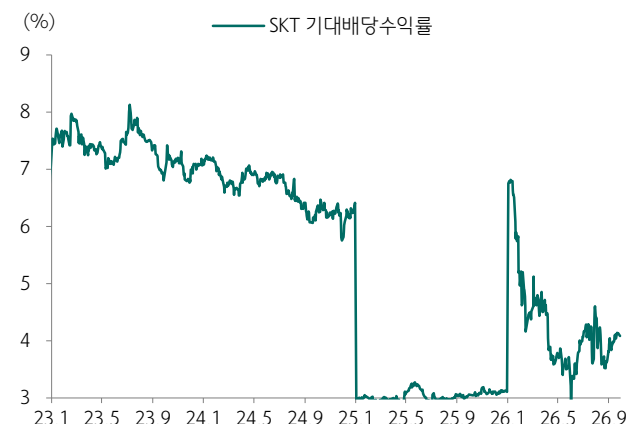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1. KT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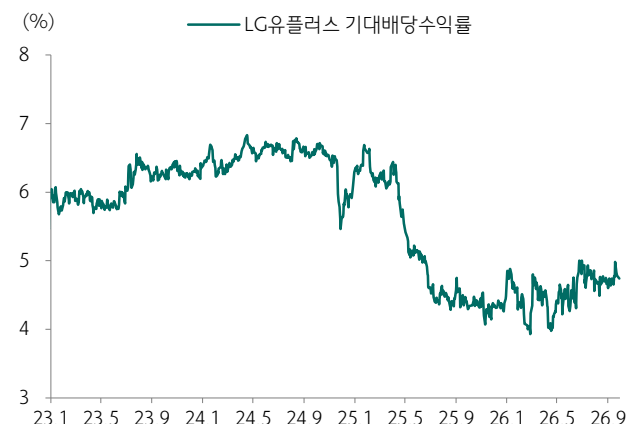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2. SK텔레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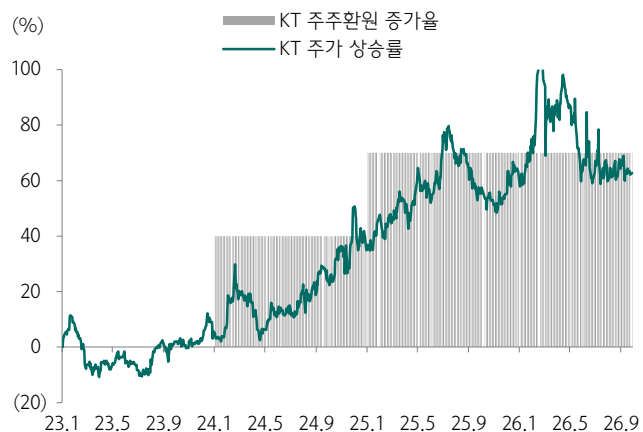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3. LG 유플러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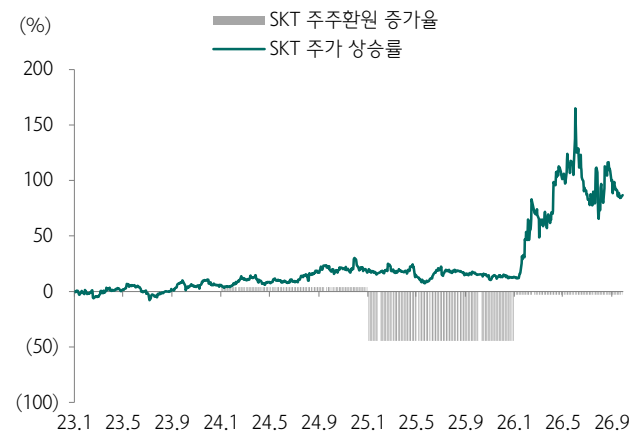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4. KT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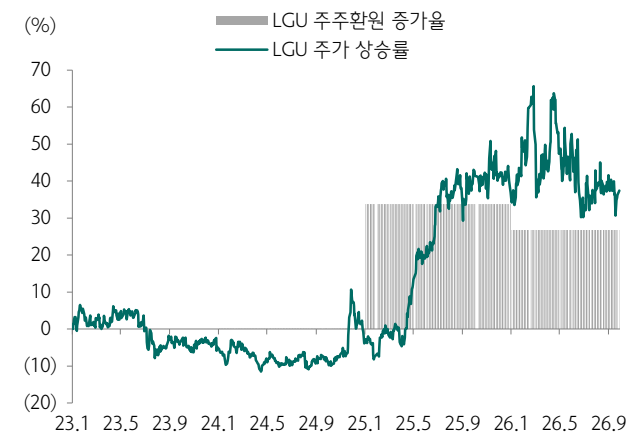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5. SK텔레콤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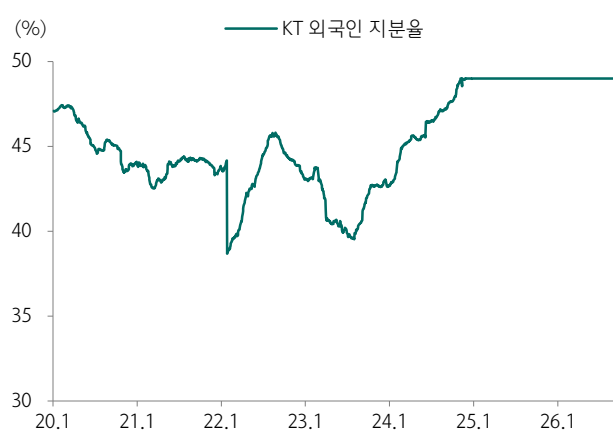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6. LG유플러스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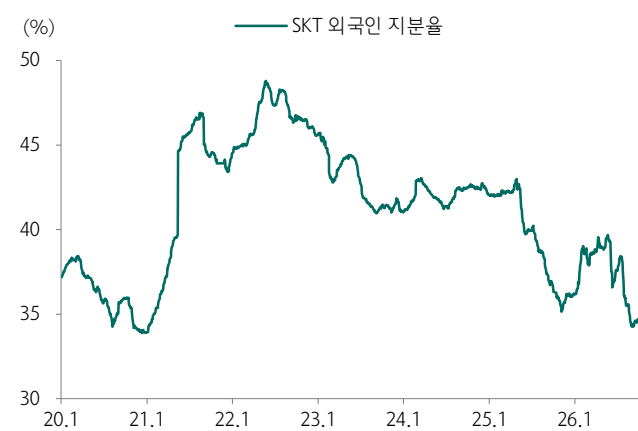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7. KT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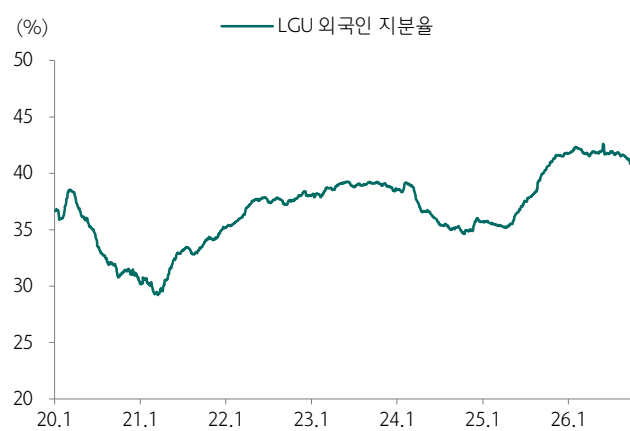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8.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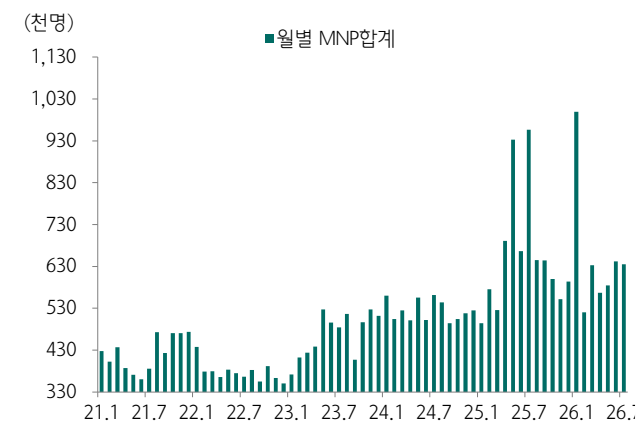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9.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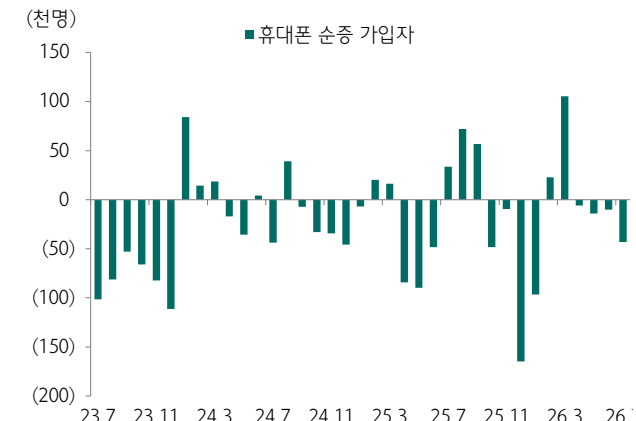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20. 월별 이동통신 MNP 합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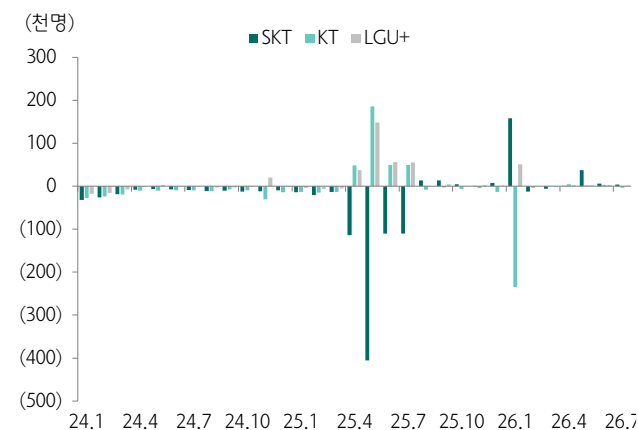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21. 휴대폰 순증가입자수 추이(통신 3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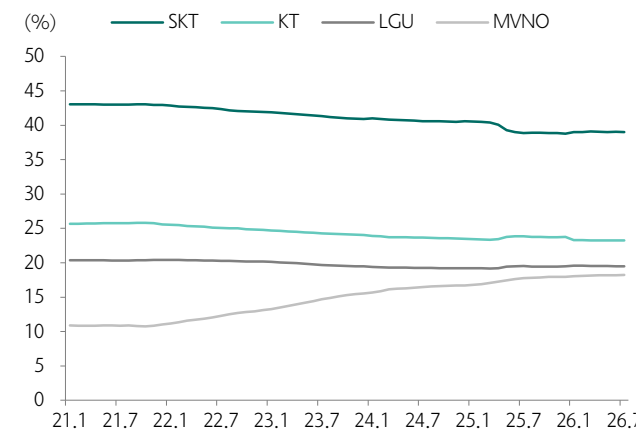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2. 사업자별 MNP 순증(순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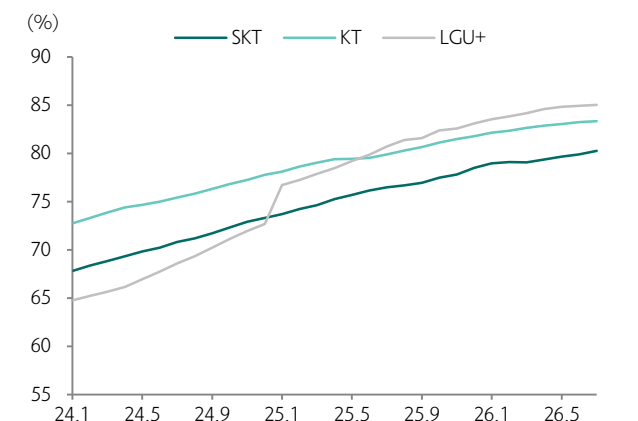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23. 휴대폰 누적가입자수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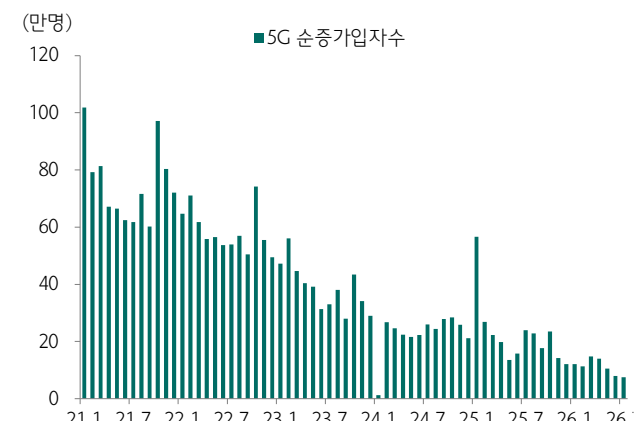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4. 통신 3사 5G 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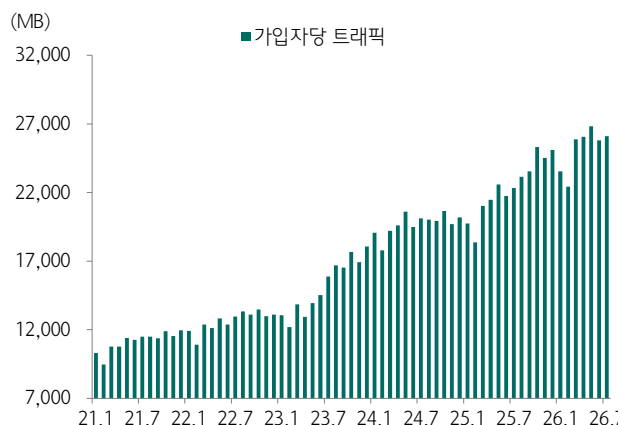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5. 5G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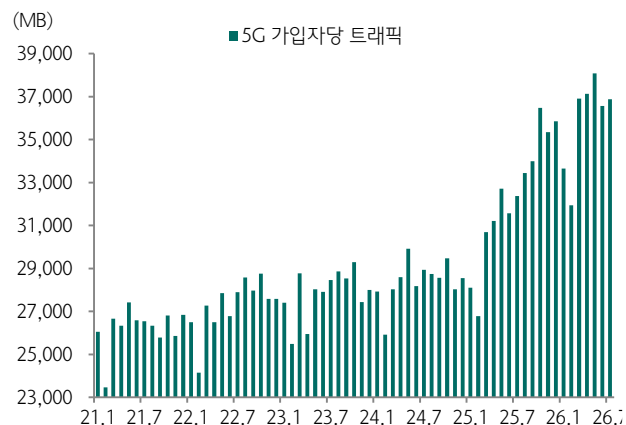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6. 국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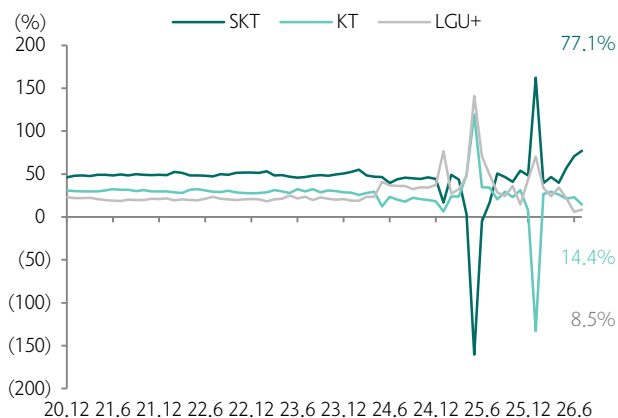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7. 5G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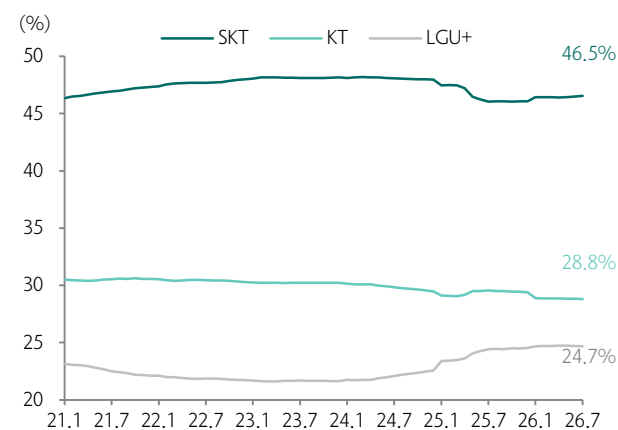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8. 5G 순증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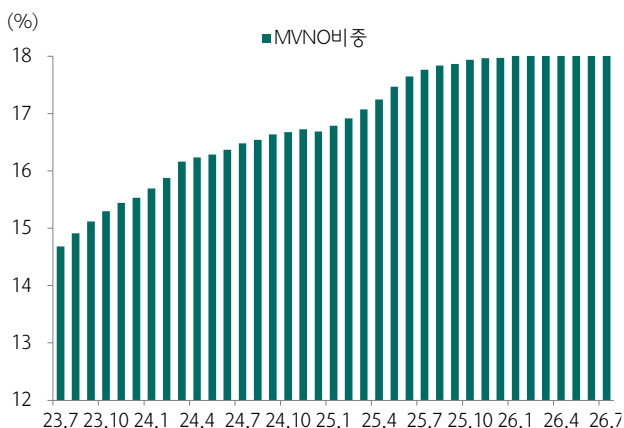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9. 5G 누적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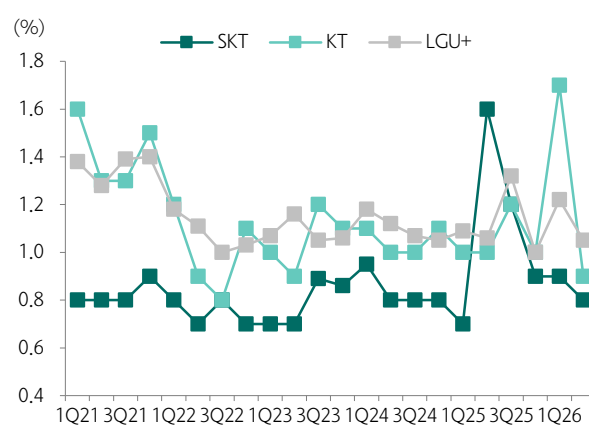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30. MVNO(재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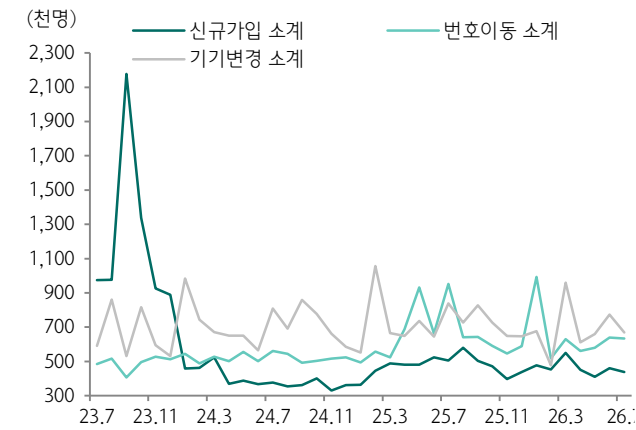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31. 통신 3사 분기별 해지율 추이



자료: 각 사, 하나증권

도표 32. 이동전화 가입 유형별 가입자수 추이 (재판매제외)



2.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10월 투자매력도는 SKT>KT=LGU+ 순으로 평가

1)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2026년 이익 급성장 속에 DPS
정상화, 2027년 AI 데이터센터/
기지국 사업 기대감 상승 예상되
기 때문

통신서비스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한다. 1) 장/단기 이익 흐름 및 성장률, 2) 장/단기 배당 또는 주주이익환원 성장률, 3) 기대 배당 수익률 및 주주환원 수익률, 4) 네트워크 경쟁력 및 차세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수혜 정도, 5) M/S 추이 및 매출액 성장률, 6)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경비 등 비용 전망, 7) 정부 규제 영향, 8) 유통 경쟁력 및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9) 신사업 및 M&A가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10) 자회사 실적 및 IPO 추진 예상, 11)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기준 하에 향후 12개월간 투자 매력도를 평가하면 통신 3사 중 SKT가 가장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SKT를 12개월 장기 Top Pick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2025년과는 달리 2026년에는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이 유력한 가운데 DPS 정상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5G 신규 요금제 출시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장기 DPS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 여전히 기대배당수익률은 매력적이라는 판단이다. 장기적으로 2027년에는 비과세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올해 국책 AI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AI 기지국 활성화와 더불어 2027년 5G SA 도입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주가 우상향 기조가 예상된다.

도표 34. 통신 3사 투자 환경상 긍정적/부정적 요인 점검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SKT	- AI 데이터센터/기지국 수익 증대 본격화 26년 4분기 비과세 배당 실시, 엔트로픽 차익 발생 기대 - 데이터센터 이익 발생이 장기 배당금 증가로 이어질 것 - 현금흐름 개선, 2026년도엔 DPS 급증 예상	- 휴대폰 가입자 감소, M/S 하락 양상 5G 가입자 정체/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양상 5G SA로의 진화,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 배당 성향 50% 상회, 이익 증가 나와야 장기 배당 성장 가능
KT	- 매출 성장 기반으로 장기 본사 이익 성장 지속될 전망 - 부동산 분양 이익 발생으로 자회사 실적 호전 지속 전망 - AI 결합 상품 출시 통한 과금화에 나서는 양상 - 낮은 PBR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나올 수 있는 상황	- 구조조정효과 미흡, 2026년 이후 인건비 다시 증가 전환 예상 - 자사주 배당 전환 당분간 어려울 것 - 인당 효율성 낮음, 과도한 영업비용 존재 - 외국인 한도 소진, 수급상 불리함 존재
LGU+	- 이익 성장률/배당 성향 수준으로 볼 때 장기 배당 증가 여력 존재 - 비용 이슈 종결, 이익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으로 전환 예상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기록할 전망 - 통신 3사 중 PER, PBR 가장 낮음, 상대 서비스 매출액 성장률 높음	-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둔화, B2B 매출 성장 폭 둔화 - 과거 대비 낮은 5G 순증 가입자 M/S 기록 중 - 주주 환원 규모로 보면 2026년 단기 감소 예상 2026년 총 배당금 규모 정체 예상
종합평가	2026년 이익 급증, DPS 정상화 가능성, AI 기지국/데이터센터 대표 주자임을 감안하여 SKT를 12개월 최선호주로 선정	

자료: 하나증권

2) 10월 매력도는 SKT>KT=LGU+ 순, SKT 올라야 KT/LGU+ 주가 상승 전망

10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KT=LGU+ 순으로 평가, 그나마 주가 상승 재료 있는 SKT를 Top Pick으로 제시

10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KT=LGU+ 순으로 제시한다. 10월에도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은 SKT로 선정하는데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엔트로픽 IPO, 국책 AI 사업자 선정, AI 기지국 투자 본격화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0월에도 SKT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호한 실적/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비과세 배당이 실시될 4분기 이후 세후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AI 사업 부문에서 데이터센터와 기지국을 바탕으로 실체를 가장 잘 입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026년 연간 SKT 연결 영업이익은 당초 우려와 달리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엔트로픽 평가 차익 역시 3조원~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와 기지국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6년 총 배당금은 2024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4분기 세후 배당금은 1,050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AI 사업이 기지국과 데이터센터 고도화로 실체를 드러낼 전망이다. AI 기지국은 본사 이동전화 매출액 증가를 이끌 것이며 SK하이퍼와 SK호라이즌은 데이터센터 발생 이익을 SKT 배당금 증대로 이끌 전망이다. 현 주가 수준에선 장/단기 투자 매력도가 높아 보인다.

KT의 경우엔 10월에도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SKT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주가 반등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7년까지 내 다본 장기 매수를 추천한다. 5만원 초중반에서의 매수는 여전히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연말 이후 시중 금리 하락과 더불어 규제 기관과 통신사간 5G SA 도입 및 신규 주파수 할당 논의가 시작될 경우 낮은 주가를 기반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2026년 KT 주식 매수의 최대 고민은 배당/주주환원이 증가하기 어렵고 높은 기저로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3분기 프리뷰가 끝나가는 10월 하순부터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악재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악재가 대부분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2027년 이후 다시 이동전화매출액 증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면 시중 금리 하락 반전 시 4.6%에 달하는 기대배당수익률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LGU+의 경우에는 예상과 달리 주가 부진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아직은 장기 주주환원증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소각분 감소로 2026년 총 주주환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아직은 2027년 주주환원 증대에 대한 확신이 크지 않은 편이다. 더불어 2028년 이후 자사주 매입/소각이 지속될 것에 대한 신뢰도 그리 높지 않은 점도 주가 상승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 메리트와 배당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15,000원 수준에서는 매수로 임할 것을 권한다. 시중 금리가 다시 하락해 회사채 발행 금리와 배당수익률간 차이가 벌어질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한 배당 지급 주식 수 감소 정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서히 연말로 다가가면서 2027년 실적 및 주주환원으로 투자자들의 시각이 이동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LGU+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 연말부터 시중 금리 하락이 나타난다면 LGU+의 기대배당수익률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도표 35.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의견

구분	투자이견	목표가 (12개월)	사유
SKT	매수	140,000원	•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DPS 다시 큰 폭 증가 전환 예상, AI 데이터센터/RAN 관련 수혜주
KT	매수	76,000원	• 부동산 자회사 실적 개선 예상,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편
LGU+	매수	20,000원	•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전망, 낮은 PBR/PER 기록 중

주: 1) 종목 투자 등급은 1. 매수, 2. 중립, 3. 비중축소, 2) 투자이견은 향후 12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36. 10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순위	종목명	주가(9/28)	3개월 예상 주가 밴드	P/E	P/B	평가 사유
1	SKT	88,200원	80,000~140,000원	14.7	1.4	• 올해 DPS 정상화 예상, 실질적인 국내 AI 대표주
2	KT	52,900원	50,000~65,000원	9.2	0.7	• 단기 이익/배당 정체 예상, 하지만 장기 ARPU 성장 기대감 높아질 것
2	LGU+	14,770원	14,000~18,000원	8.8	0.7	• 2026년 이익 급증 전망, 2027년 주주환원 기대감 높아질 것

주: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단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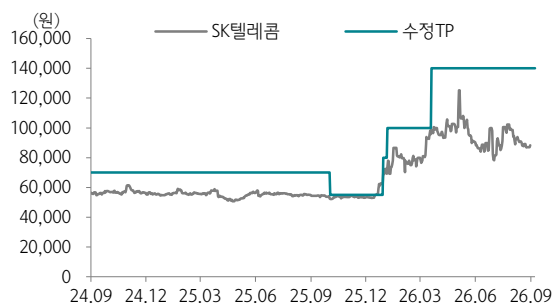
도표 37. 10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변화

구분	순위(10월)	순위(9월)	순위 변화	사유
SKT	1	1	-	• AI 데이터센터/기지국 관련 수혜주, 이익/배당 정상화 속도 빨라
KT	2	2	-	• DPS/이익 정체 예상, 하지만 장기 성장성 감안 시 추가 수준 매력적
LGU+	2	2	-	• 2027년 다시 주주 환원 규모 증가 예상, 금리 하락 시 배당수익률 부각될 것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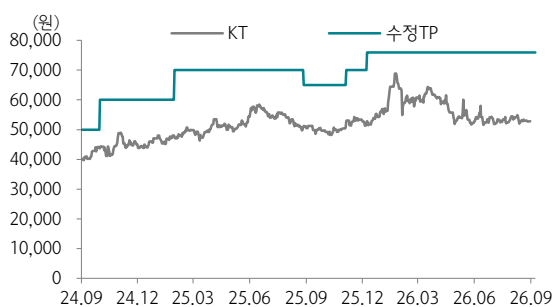
SK텔레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17	BUY	140,000		
26.2.3	BUY	100,000	-19.60%	-1.90%
26.1.27	BUY	80,000	-12.47%	-9.38%
25.10.31	BUY	55,000	-1.16%	14.00%
25.3.28	1년 경과		-	-
24.3.28	BUY	70,000	-21.72%	-12.14%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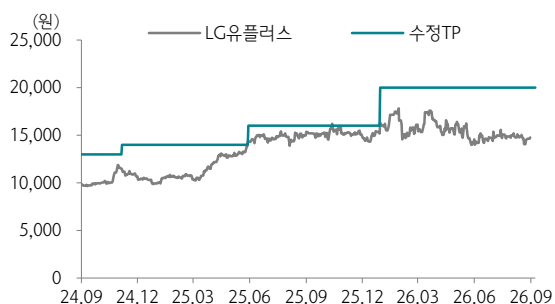
KT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6	BUY	76,000		
25.12.3	BUY	70,000	-24.70%	-22.57%
25.9.25	BUY	65,000	-23.37%	-21.23%
25.2.27	BUY	70,000	-25.61%	-16.57%
24.10.29	BUY	60,000	-24.54%	-18.33%
24.8.9	BUY	50,000	-18.52%	-11.60%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LG유플러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7	BUY	20,000		
25.6.27	BUY	16,000	-6.38%	1.31%
24.12.4	BUY	14,000	-19.13%	2.14%
24.11.26	BUY	13,000	-10.26%	-8.46%
24.3.28	Neutral	13,000	-24.06%	-13.5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9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6년 9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8%	1.82%	0.00%	100%

* 기준일: 2026년 09월 27일